전환의 문턱에서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획취재 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한 제언

1993년. 우리는 현재 20세기의 끝에 서있다.

개교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 고황골에 첫삽을 떠올린 후 우리 대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이룩해 왔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경희로 우뚝서는 폐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뷔시올 후 등록금책정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이후 등록금은 매년 10%이상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짤삶기장학 C급의 경우 등록금이 60만원 때인 10년전이나 1백만원을 상회하는 93학년도나 똑같이 30만원을 꾸준히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은 이러한 소수의 소리를 경하히 받아들이면서 닫순한 비판이 아닌 창조를 위한 개혁의 비판을 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학당국,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는 교직원의 애로사항, 그리고 경희의 수혜자인 교수와 학생 등 모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한다. 또한 기자의 날만으로 지면이 이루어 질 경우, 다소 기자의 권견이 가미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각 시안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난'을 마련하였다.

또한 타대학의 상황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우수한 정책이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소개함으로써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리즈는 1, 2학기 2부분으로 나누어져 약 20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글신는 순서 참고〉**

1. 대학의 구성원이 말은바 제약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변의 여건이랄 수 있는 '복지정책'.

우리대학의 상황은 어떠하며, 대학당국의 정책은 어떤지, 그리고 타대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지방학생들의 요탕이랄 수 있는 기숙사문제. 퇴없이 오르기만하는 부동산 값과 전세값. 하숙비.

이들 모두가 지방학생들의 설땅을 절점 조여만 오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학생이라면 모두가 기숙사 입주에 열을 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요는 넘쳐나나 공급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 주변의 하숙·자취여건은 어떠하며, 기숙사 일주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교육부의 기준과 우리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치솟기만하는 등록금과 목마른 장학금문제. 학원자율화 이후 등록금책정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이후 등록금은 매년 10%이상의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짤삶기장학 C급의 경우 등록금이 60만원 때인 10년전이나 1백만원을 상회하는 93학년도나 똑같이 30만원을 꾸준히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은 이러한 소수의 소리를 경하히 받아들이면서 닫순한 비판이 아닌 창조를 위한 개혁의 비판을 하고자 한다.

4.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 그곳에서 1백명이 넘는 학생이 마이크를 꺼고 강의하는 한명의 교수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몇명의 학생과 함께 토론식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어느것이 학습효과가 큼까? 현재 우리대학은 교수 한명당 학생비율이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문교기준에 훨씬 미치고 있지 못하다. 많은 학과는 1백%가 넘는가 하면 적은 학과는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한 원중현상이다. 이에대한 대학당국의 계획과 총학생회 산하 교과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본다.

5. 이공계대학의 실습기자재 완벽한가. 이공계대학은 첨단과학분야와 재조업분야의 인력을 수급하는 분야로 실습기자재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대학에는 어떠한 실습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부의 실습기자재 설치기준에 관해 알아본다. 또한 한학기당 책정되어있는 실험실습비의 쓰임용도에 대해 살펴본다.

6. 전분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의 교육이 교양교육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대로 마련된 커리큘럼이없는가, 아니면 학생의 질이 문제인가? 이에대한 문제점을 해부하고 일선교수들의 처방을 들어본다.

7. 서울대 교수들에게 교내외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는 약 2~3백억원, 포항공대가 2백억, 그리고 고려대가 8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대학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교수연구비로 지원한 예산은 1억5천만원, 연구소 연구비 3천만원으로 총 1억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간판뿐인 연구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 학문의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비례상은 무엇인가?

8.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방 수준으로 전락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장서를 보관하고 대학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한다. 대학당국에서는 정보기능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원캠퍼스 신축도서관의 모습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9.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소리를 들어본다.

11. 우리대학의 2천년대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의 경희의 발전상을 제시해 줄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도화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 91년 8월부터 기획위원이 중심이돼 7개분과로 나뉘어 1년여에 걸친 각고끝에 완성단계에 이른 발전계획의 내용과 허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11개항목이 1학기동안 연재될 예정이다. 또한 2학기에도 대학발전에 반드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집중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학내 건축현황문제, 학원의 주차장문제, 취업대책에 관한 문제, 몇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서울캠퍼스 강당공사 등 전측현황문제, 그리고 총동문회와 민주동문회로 양분되어 있는 동창회의 현실. 뿐만아니라 서울의 경우 한집건너 술집, 두집건너 카페만 들어서고 있는 현실과 마땅히 설곳이 없어 십리밖 수원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수원캠퍼스 등 캠퍼스타운 문제도 알아본다. 적은 지원속에서도 곳곳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부 활성화 방안, 원할 시설의 충원이 체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 직원채용문제, 그리고 대립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문제 또한 대학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대학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사안들이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의 장 場 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사에서는 위의 사안들에 대해 학내 각계각층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복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을 바란다.

〈취재부〉

글신는 순서

1. 복지의 '무풍지대'정책도 오락가락
2. 지방학생의 요람, 기숙사 태부족
3. 치솟는 등록금에 목마른 장학금
4. 교강사 문제—문교부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재원
5. 이공계 대학 실습기재 완벽한가
6. 교양교육 수준 대학원 전문교육 아쉽다
7. 학내연구소 제기능 다하고 있나—간판뿐인 연구소 많아
8. 도서관—점보기능 전무, 학생들 공부방으로 전락
9. 공간사용—폭주하는 요구, 더이상 수용할 곳이 없다
10. 대학문화의 산실 동아리—입학과 동시 취직걱정 전문동아리 지원자 인플레
11. 중장기 발전계획—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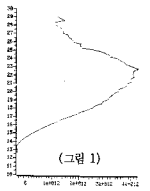
찢어지는 자외선 우산

학술보고 라이다에 나타난 한반도 오존층 분석

태양자외선 피부암 유발 우리 오존층 평균치와 비슷

오존은 3개의 산소원자로 이루어진 비활성 기체이며 투색의 반응이 강한 강산화제이다. 오존의 대부분은 대기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대류권에서는 질소 및 탄소화합물에 의한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오존은 3백nm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매우 강하게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오존은 대류권 및 성층권에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층을 오존층이라고 부른다. 즉 이러한 오존은은 태양 자외선을 지상에까지 도달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은 시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인체에는 피부암, 면역성 감퇴, 백내장, 세포의 증식 방해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본교 레이저공학 연구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 일반물리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성층권 오존농도의 고도별 분포를 알 수 있는 차분흡수방식 라이다를 설치 운전중에 있다. 차분흡수방식이란, 두개의 서로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성층권에 발사하여 성층권 오존층에 흡수 및 산란된 후 돌아오는 수신광자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층권 오존의 분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라이다 시스템은 크게 송신측으로는 XeCL LASER 및 RAMAN Shifter, 수신측으로는 6inch 수신망원경, 광·스펙트럼분석기, 데이터분석 장치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지난해 9월부터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수원 캠퍼스 상공의 오존층은 17~25km에서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 이의 측정값은 러시아 라이분 기상연구소의 측정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측정값은 미국의 위성 NIMBUS-7호가 78년 부터 수년간 측정한 평균값에 비하여 고도 10~30km에서 약 15~20%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피나투보화산 활동 이후에 관측된 북반구에서의 오존층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은 남극상공 오존의 파괴된 모습.

본 레이저 공학 연구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층권 오존측정 라이다외에 대류권 오존 라이다를 올해 3월 중에 도입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성층권 및 대류권 오존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다를 이용한 오존측정기술은 짧단 레이저 공학 및 레이저 분광학, 응용광학, 기상학, 환경공학 등의 포괄적인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위의 전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소에서는 라이다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속시켜 최종적으로는 한국독성에 대한 데이타 처리기술화로, 기반자료의 데이타 베이스화 및 라이다 장치의 자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학 및 연구부자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및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인원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찬 봉

〈공대 대학원·박사과정〉

'경희'의 현주소 점검과 지표설정 절실

집단이기주의 지양한 공동의 '마당'만들기

교수·직원·학생뿐 아니라 경희를 거쳐나간 동문들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수에게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해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심신을 단련하고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전환기에 서있는 경희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그 나아갈 지표를 설정하는데 일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환점에 서서…이것만은 해결하자'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본사의 논조가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고 한다.

■ 가까운 안과나 콘택트렌즈 전문점에 문의하세요.

®CIBA Vision

"세계인의 눈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온"

시바비전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비전은 AIDC(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 공식후원업체입니다.

®CIBA Vision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소프트 칼라 콘택트렌즈

●본래의 눈동자색은 변화시키지 않는 엷은 푸른색의 칼라렌즈로 본인위원이 적고, 착용, 세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이름난 미 연방식품 의약품 (F. D. A) 이 공인한 세계적인 콘택트렌즈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칼라 콘택트렌즈입니다.

소독, 중화, 보존까지—

시바에이 오젯트+마라 플로(2개월분)

●사용 콘택트렌즈를 단 한번에 소독, 중화, 보존까지 할 수 있어 정말 간편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화된 콘택트렌즈를 식염수에 헹궈 다음 바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 플로를 함께 사용하면 1일 1회 세척으로 보다 완벽합니다.

'세계 남성의 날'은 언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기네끼리 더 닮았다. 정말 그들은 두가지 감정, 허영과 사랑 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 두가지 감정이 여성의 보편적 특성이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체스터필드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여성에 대한 처세술의 조언을 한 편지를 피력한.

워는 어떤 특정인을 드러내고자 함은 아니다. 사실 에들 든 그 특정인의 사고방식에 동의하고자 하는 부류도 상당수 되리라. 그만큼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위의 글은 일반화 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여성은 한낱 감정의 동물'이라는 낙인은 현재의 부재사회를 더욱 공고히 할 뿐더러 여성 스스로도 한 인간으로서 옹츠러 돕게 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누구를 서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가? 그것은 여성을 종속하려는 남성의 발상에서 시작되었을에도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남녀 모두에게 하나의 당위처럼 받아들이게끔 조장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문제의 저변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근원들이 바로 여성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연등한 존재로 치부하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의 유포가 아닌가 싶다.

단순한 여성문제만은 아니지만 일제치하 군 위안부 문제는 사회여론화 된지 얼마되지 않는다. 17세 미만의 여성이 하루에 20~30여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등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한국여성의 참상은 역사의 그늘속에 묻힌 있었다. 민족문제와 한 개인의 일생의 한과 상처가 되는 위안부의 비극은 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생존한 당사자가 증언을 망설인 이유로 그 진상을 파헤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여성의 순결을 지상의 가치로 인식해

는 고정관념이 증언을 늦춘 것이다.

자의적인 것이 아닌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 사회는 여성에게 성에 관한 문제를 폭로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의 순결을 빼앗기면서도 쉬쉬해야 하는 성폭력의 문제 또한 이와 궤를 달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여성을 숨죽이게 하는 사회정서는 직장여성들에게도 심각한 과장을 미치고 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은 상존한다. 쉽게 감원과 해고의 대상으로 오르는 것이 여성이다. 미혼여성 조차 이러한데 기혼직장 여성들의 탁아문제와 모성보호 문제 또한 고려될 리 없다.

지금 일각에서는 군위안부 진상 규명, 성폭력특별법 제정,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여성편견들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는 공공연히 여성에 대한 비하를 서슴지 않는 부류가 상당하고 여성들 스스로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안주하려는 경향 또한 허다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85돌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이라고 특별하게 제정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 나약하기만 하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니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던 모양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여 정치적 평등과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부인하지 않고 추구한다면 여성의 날을 부정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여성이라는 성이 부각되어지니 말이다. 여성문제가 얼마나 누적되어 왔으면 여성의 날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아쉽기만 하다.

이제 우리는 '세계 여성의 날'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 남성의 날'이 제정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봅직도 하지 않은가?